

## 한국가족치료학회지 분석을 통한 가족치료 연구의 동향분석: 비치료연구를 중심으로\*

조 성 봉                      노 미 화                      김 현 수\*\*  
(한동대학교)                      (사과나무아동가족상담소)                      (한양대학교)

1993년을 시작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는 가족치료학의 발전과 변영을 위해 다양한 주제와 종류의 논문들을 출간하여왔다. 한국가족치료학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가족치료학회지의 동향이 한차례 분석된 바 있으나, 3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지난 10년간의 논문들을 다시금 되돌아볼 필요가 제기되게 되었다. 이에 2018년 학회창립 30주년 기념 학술사업으로 최근 10년의 한국가족치료학회지 논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 중 비치료연구에 집중하여 이들 연구의 동향과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한국가족치료학 비치료연구의 보완점과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2008년 2호에서 2018년 1호까지 최근 10년 동안 한국가족치료학회지에 출간된 비치료연구 총 155편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들 연구는 먼저 경험적연구와 문헌연구로 분류되었고, 경험적연구는 다시 양적분석연구와 질적분석연구로 세분류되었다. 분류된 양적분석 경험적연구, 질적분석 경험적연구, 문헌연구 논문들을 대상으로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 분석방법에 따른 특성을 상세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최근 10년간의 한국가족치료학회지에 게재된 비치료연구의 특징 및 동향을 이해할 수 있었고, 추후 한국 가족치료학 발전을 위해 이 분야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주제어 : 한국가족치료학회지, 가족치료, 연구 동향, 비치료연구

---

\* 본 논문은 한국가족치료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되었음.

\*\* 교신저자 : 김현수 / 한양대학교 대학원 아동심리치료학과 부교수 / (04763)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409호 / Tel : 02-2220-2638 / E-mail : khs1004@hanyang.ac.kr

## I. 서론

한국가족치료학회는 한국 가족치료학 발전이라는 원대한 목표 아래 1993년 <한국가족치료학회지>라는 명칭의 학회지를 창간, 그 이후 26년의 기간을 가족 및 가족치료와 관련한 다양한 논문들의 출간에 매진해 왔다. 지난 26년은 한국가족치료학회지에 있어서 양적 및 질적 성장을 이루는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먼저, 양적 측면에서 학회지는 1993년을 시작으로 1997년까지는 연 1회, 1998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 2회,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연 3회, 그리고 2014년부터 현재까지는 연 4회로 그 발간 횟수를 꾸준히 늘려 왔다. 또한, 한국가족치료학회지는 2007년 한국연구재단의 전신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등재후보지 선정을 받았고 그 3년 뒤인 2010년에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등재지 선정을 받는 등 질적 측면에서도 성장을 이루어 왔다.

한국가족치료학회에 게재된 논문들의 특성 및 동향 분석은 2008년 서진환에 의해 한차례 시행된 바 있다. 서진환(2008)은 1993년 창간호에서 2008년 1호까지 총 16년의 기간 동안 한국가족치료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총 157편을 분석했다. 그는 논문을 먼저 임상치료연구와 비치료연구로 구분한 뒤 임상치료연구는 다시 성과, 과정, 사례 연구로 삼분하고 비치료연구는 경험적연구와 문헌연구로 이분하는 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결과, 총 157편의 분석대상 논문 중 임상치료연구 대 비치료연구의 비율이 1:2(53편 대 104편)로 비치료연구가 임상치료연구보다 2배 정도 많음을 발견하였다. 임상치료연구 중 실험적 설계를 활용한 성과와 과정 연구(성과연구+과정연구) 대 사례연구의 비율은 약 1:1(26편:27

편)로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된 반면 비치료연구 중 경험적연구 대 문헌연구의 비율은 약 6:4(58편:46편)로 경험적연구가 문헌연구보다 다소 더 많이 진행되었다. 또한 비치료 경험적연구 중 양적 분석을 사용한 연구 대 질적 분석을 사용한 연구는 그 비율이 약 8:2(45편:13편)로, 양적 경험적연구가 질적 경험적연구보다 4배가량 더 많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진환(2008)의 결과에서도 드러나듯, 한국가족치료학회지 게재 논문의 2/3는 비치료 연구논문으로, 그 수는 임상치료연구 논문 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동일한 비율이 2018년 김현수, 노미화, 조성봉의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최근 10년의 논문 분석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비치료연구에 대한 특징 분석은 높은 구성 비율에도 불구하고 2008년 서진환이 한국가족치료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사업의 일환으로 분석한 것이 전부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임상치료연구에 대한 특징 분석은 2008년 서진환의 분석 이후 2010년 서진환에 의해 그리고 2018년 김현수, 노미화, 조성봉에 의해 다시 진행되었다. 특히, 서진환(2010)의 두 번째 연구와 김현수 외(2018)의 연구는 임상치료연구에 집중하여 각각 1993년~2008년까지의 16년 기간의 그리고 그 이후에서 2018년까지의 최근 10년 기간의 임상치료연구들을 밀도 있게 조명하였다.

이처럼, 가족치료학회지에 게재된 비치료연구는 최근 10년간의 동향이 분석되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서진환(2008)과 김현수 외(2018)의 연구에서 시사되었듯, 한국가족치료학회지에 게재된 전체 연구들 중 비치료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임상치료연구의 비율보다 더 높다. 또한, 서진환(2008) 연구 이후로 출간된 비

치료연구 논문 수가 155편으로 그 이전 16년간의 비치료연구 논문 수인 104편보다 더 많았다(김현수 외, 2018). 이러한 점은 비치료연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며, 더욱이 서진환(2008) 분석 이후 한국가족치료학회지에 게재된 비치료연구들에 대한 특징 분석을 통한 한국가족치료학 비치료연구에 대한 이해와 이영역 추후 발전 방향의 모색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더욱이, 최중진과 고정은(2018)은 한국가족치료 및 상담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현황조사에서 가족상담 전문인력 양성이 2005년 이후로 증가하였다는 주장을 펼치며, 2018년 기준, 석사, 박사 과정 등 다양한 수준에서 가족상담 인력양성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2005년 조사 결과에 비해 두 배 이상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교과과정 면에서도 개설과목의 수가 2018년 기준 총 923개로 방대하며, 그 종류도 가족 및 인간발달과 같은 기초 이론, 가족치료 및 상담 이론은 물론 연구방법, 직업윤리, 슈퍼비전, 실습에 이르기까지 다양함을 지적하였다. 가족상담 인력양성 교육기관의 수 증가와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커리큘럼의 다양성은 한국가족치료학회지에 출간된 임상치료 연구는 물론 비치료연구의 수와 연구 주제 및 연구 특징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분석은 추후 가족상담 인력양성 기관의 커리큘럼 구성은 물론 가족치료 관련 학회의 워크숍이나 학술대회 주제 선정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포함한 시기인 2008년~2018년 최근 10년 동안 한국가족치료학회에 출간된 비치료연구를 대상으로 그 동향과 특징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가족치료학의 발전상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추후 교육 및

수련 과정 개선에 유용한 교육적, 임상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진환(2008) 분석 이후로 출간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비치료연구들에 대한 유형별, 주제/연구목적별, 대상군별, 연구방법론별, 분석방법론별 상세 분석을 통해 최근 10년간의 한국가족치료학회지 비치료연구의 동향을 이해하고 추후 이 분야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절차

한국가족치료학회지 비치료연구의 동향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2008년 2호부터 2018년 1호까지 최근 10년 동안 <한국가족치료학회지>와 <가족과 가족치료>(2015년부터는 이 이름으로 학회지 명칭이 개정되었음)에 출간된 논문 228편 중 비치료연구에 해당하는 논문 155편을 선정, 이를 집중 분석하였다.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창간해인 1993년 1호(창간호)부터 2008년 1호까지 총 16년의 기간 동안 <한국가족치료학회지>에 게재된 비치료연구 논문에 대한 분석은 서진환이 2008년에 이미 시행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이후 시기인 2008년 2호부터 2018년 1호에 이르는 최근 10년의 기간을 분석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가족치료학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학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연구였기 때문에 창립 30주년이 되는 2018년을 분석의 다른 한 기준점으로 삼았다.

본 연구는 서진환(2008)과 김현수 외(2018)의 연구들로부터 온 결과의 일부를 본 연구결과

와 함께 제시하였다. 이는 그 이전 16년간의 연구 동향과 최근 10년간의 연구 동향 간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일뿐만 아니라 최근 10년 동안 이루어진 연구들 중 연구 유형 간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 2. 연구 분석들

최근 10년간의 한국가족치료학회지의 비치료연구들에 대한 동향 및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서진환(2008)의 분석들을 사용하였다. 이는 서진환(2008)이 진행한 이전 16년간의 한국가족치료학회지 비치료연구들의 분석 결과와 최근 10년간의 한국가족치료학회지 비치료연구들의 분석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였다. 이 분석들은 먼저 연구를 임상치료연구와 비치료연구로 구분한 뒤 임상치료연구를 성과, 과정, 사례연구로, 그리고 비치료연구를 경험적연구와 문헌연구로 세분화한다. 비록 김현수 외(2018)의 한국가족치료학회지 게재 논문 동향 및 특성 분석 연구에서는 임상치료연구의 유목을 복수사례연구 대 단일사례연구로 이분하여 서진환(2008)의 분석들에 수정을 가했지만, 비치료연구에서는 서진환(2008)의 분석들을 그대로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비치료연구 분석들은 서진환(2008)과 김현수 외(2018)의 비치료연구 분석들과 동일하게 되었다. 이렇게 분석들을 일치시킨 이유는 김현수 외(2018)의 연구에서 카운트한 비치료연구 유형별 수와 본 연구의

〈표 1〉 연구 분석들

범주	유형	소유형	설명
임상 치료 연구	복수사례 임상치료연구	양적 분석	복수사례에 대한 개입 효과성을 탐색한 연구로 성과/과정에 대한 양적 분석을 포함한 연구
		질적 분석	복수사례에 대한 개입 효과성을 탐색한 연구로 성과/과정에 대한 질적 분석을 포함한 연구
		양·질적 혼합분석	복수사례에 대한 개입 효과성을 탐색한 연구로 성과/과정에 대한 양·질적 분석을 포함한 연구
	단일사례 임상치료연구	질적 분석	단일사례의 개입 성과/과정에 대한 질적 분석을 포함한 연구
		양적 분석	단일사례의 개입 성과/과정에 대한 질적 분석을 포함한 연구
		질·양적 혼합분석	단일사례의 개입 성과/과정에 대한 양·질적 분석을 포함한 연구
비치료 연구	경험적연구	양적 분석	실태/현황의 파악, 척도 개발 및 검증, 이론/모델 검증 및 관련 변인간 관계 검증을 위해 양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
		질적 분석	현상발견이나 탐색 및 이론 개발을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
	문헌연구	문헌 및 이론의 고찰 및 분석	연구동향 분석, 쟁점 논의 (문화, 여성, 윤리), 모델/기법의 소개와 설명, 관점과 이론에 대한 심층 이해, 실태/현황 파악을 위해 문헌이나 이론을 고찰·분석한 연구

상기 분석들은 김현수 외(2018)의 연구에서 발췌함.

비치료연구 유형별 수를 일치시키기 위해서였으며 서진환(2008)의 1993년(창간호)~2008년(1호)의 16년간의 비치료연구 분석 결과와의 직접적 비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김현수 외(2018)의 연구에서 사용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게재 논문의 분석들은 <표 1>과 같다. <표 1>에는 유목명과 함께 유목에 대한 상세설명도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인 비치료연구들은,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크게 경험적연구와 문헌연구로 구분되었고, 경험적연구는 다시 양적 분석을 사용한 경험적연구 대 질적 분석을 사용한 경험적연구로 이분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큰 분석틀을 사용하여 먼저 연구들을 분류한 후 각 유목에 해당하는 연구를 특성별로 상세 분석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즉, 양적 분석 경험적연구는 다시 실태/현황조사, 변인 간 관계 검증 연구, 척도개발 연구라는 하위 주제로 구분되어 주제별로 상세 분석되었고, 질적 분석 경험적연구는 연구대상 및 주제, 연구방법론, 질적연구의 질에 대한 평가로 구분되어 상세 분석되었으며, 문헌연구는 가족치료 주요개념 및 모델의 분석, 가족치료의 통합/확장 및 적용, 실천분야 현황조사 및 방안제시, 성과연구 분석, 특정개념 및 현상에 대한 탐색이라는 5개의 큰 주제로 구분되어 상세 분석되었다.

### III. 결과 및 해석

#### 1. 시기별, 유형별 연구 동향 분석: 비치료연구를 중심으로

2008년 2호에서 2018년 1호까지 한국가족치

료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총 228편을 본 연구의 분석틀에 맞춰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의 결과는 김현수 외(2018)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와 동일하다. 또한, 서진환(2008)의 한국가족치료학회지 논문 분석 결과와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진환(2008) 연구 결과의 일부를 <표 2>에 함께 포함시켰다(<표 2>의 맨 하단 참고).

<표 2>에서 볼 수 있듯, 2008년 2호부터 2018년 1호까지 최근 10년 동안 한국가족치료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편수는 총 228편으로, 이는 그보다 앞선 16년 동안 한국가족치료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편수인 157편보다 더 많았다. 최근 10년간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임상치료연구는 총 73편, 비치료연구는 총 155편으로 비치료연구가 임상치료연구보다 2배 정도 많았다(32%:68%). 이는 그 이전 16년간의 임상치료연구 대 비치료연구 비율인 34%:66%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서진환, 2008).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학회지 명칭이 <한국가족치료학회지>에서 <가족과 가족치료>로 변경된 2015년을 기점으로 비치료연구의 비율이 임상치료연구의 비율보다 상당히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전 7년이 50~64% 수준이었던 데 비해 2015년 이후부터는 낮게는 74%, 높게는 92%로 전체연구 중 비치료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가족치료학회가 ‘가족치료’에서 ‘가족과 가족치료’로 두고 주제 범위를 넓힘에 따라 두고자들이 치료를 다룬 논문 이외에도 가족 관련한 다양한 비치료연구들을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편 전체 155편의 비치료연구들 중 경험적연구와 문헌연구는 각각 128편과 27편으로, 그

〈표 2〉 연구 분석들에 따른 연도별 연구 동향(2008-2018년의 10년 연구 동향)

년도 (호)	임상치료연구					비치료연구			합계	
	복수사례연구			단일사례연구		경험적연구		문헌연구		
	양적 분석	질적 분석	양+질적 분석	질적 분석	양+질적 분석	양적 분석	질적 분석	문헌 연구		
2008(2호)	0	0	0	3	0	3	0	1	7	
2009	2	1	1	4	0	8	2	1	19	
2010	1	2	1	3	1	3	3	2	16	
2011 <sup>b</sup>	3	1	0	5	1	3	5	3	21	
2012	0	2	1	3	3	7	8	1	25	
2013	3	1	0	2	0	7	0	1	14	
2014 <sup>c</sup>	1	1	1	4	2	3	2	4	18	
2015 <sup>d</sup>	2	0	3	2	2	12	6	8	35	
2016	1	1	3	2	0	15	5	0	27	
2017	0	0	0	1	2	14	16	5	38	
2018(1호)	0	0	1	0	0	4	2	1	8	
합계	(범주내 %)	13 (39.4)	9 (27.3)	11 (33.3)	29 (72.5)	11 (27.5)	79 (61.7)	49 (38.3)	27 (100)	228
	(전체중 %)	33 (14.5)		40 (17.5)		128 (56.1)		27 (11.8)		
93-08 (1호)	(범주내 %)	11 (42.3)	6 (23.1)	9 (34.6)	-	-	45 (77.6)	13 (22.4)	46 (100)	157
	(전체중 %)	26 (16.6)		27 (17.2)		58 (36.9)		46 (29.3)		

2008(2호)~2018(1호)의 결과는 김현수 외(2018) 연구에서 발췌;

1993-2008(1호)의 결과는 서진환(2008) 연구에서 발췌.

<sup>a</sup> 1993~1997 기간은 년 1회 발간하였고 1998~2010년 기간은 년 2회 발간하였음;

<sup>b</sup> 2011~2013 기간은 년 3회 발간하였음; <sup>c</sup> 2014~현재 기간은 년 4회 발간하였음;

<sup>d</sup> 2015년을 시작으로 학회지 명칭이 <한국가족치료학회지>에서 <가족과 가족치료>로 변경되었음.

비율은 약 8:2(82.6%:17.4%)였다. 경험적연구를 다시 양적분석연구와 질적분석연구로 나누었을 때 그 비율은 약 6:4(61.7%:38.3%)였다. 그 이전 16년에는 104편의 비치료연구들 중 경험적연구와 문헌연구는 각각 58편과 46편으로 약 5.6:4.4의 비율을 나타내었고, 경험적연구

중 양적분석연구와 질적분석연구는 45편과 13편으로 약 8:2의 비율을 나타내었다(서진환, 2008). 수치에서 확인할 수 있듯, 그 이전 16년간 비교적 대등하던 경험적연구 대 문헌연구의 비율이 최근 10년 동안 약 8:2로 경험적연구가 문헌연구를 압도하는 수준으로 변화되

었다. 반면, 8:2로 비교적 컸던 양적분석 경험적연구 대 질적분석 경험적연구의 비율이 최근 10년 동안 약 6:4로 비교적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즉 지난 10년간 그 이전 16년에 비해 질적분석방법을 활용한 비치료적 경험적연구의 수가 양적분석방법을 활용한 비치료적 경험적연구의 수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양적 연구가 대세를 이루고 있던 경험적연구 영역에서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 2. 비치료 경험적연구의 동향 분석

경험적연구(empirical study)란 경험적 증거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연구를 말하는 것으로, 어떤 이론이나 개념을 제시하는 것과는 달리 특정한 연구 질문을 가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현상을 관찰하거나 그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수집, 이를 질적 혹은/그리고 양적 분석하는 연구를 말한다. 본 동향분석 연구에서

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경험적연구들이 사용한 연구방법을 토대로 먼저 양적분석연구와 질적분석연구로 나누고, 각 해당 유목의 연구들을 다시 연구목적에 따라 세분류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 1) 양적 경험적연구

양적연구를 분류함에 있어서 지난 동향분석 연구(서진환, 2008)에서 사용된 기준을 적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따라 실태/현황조사, 변인간 관계 검증, 그리고 척도 개발 및 검증으로 세분류하였다.

#### (1) 실태/현황조사

특정한 현상에 대한 자료 수집을 통해 해당 현상에 대해 기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들이 이 영역에 포함되었다. 연구 분석 기간 동안(2008-2018년) 실태 및 현황조사로 분류될 수 있는 논문은 총 5편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4편은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표 3> 참고). 그 내용으로는 가족상담에 대한 기대(하지승, 최연실, 2008), 이혼

<표 3> 양적 경험적연구 중 한 유형인 실태/현황조사 연구의 분석(2008-2018년)

저자	연구대상	자료수집	연구제목	분석방법
하지승, 최연실 (2008)	기혼남녀 308명	설문	기혼남녀의 성인애착 유형과 가족상담기대	빈도분석
이세은, 최연실 (2009)	이혼상담관련 종사자	설문	상담관련 종사자의 이혼상담 경험과 미래 사용 의사에 대한 탐색적 연구	빈도분석
정문자, 김윤경 (2010)	가족치료 사례	사례	해결중심단기치료사례의 특성과 효과성 연구	빈도분석
장은화, 어주경 (2013)	초등4-6학년 683명	설문	아동의 자아개념 및 다문화 경험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	빈도분석
홍경선 (2014)	초중고 학부모 531명	설문	사이버불링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학부모의 사이버불링 인지를 중심으로	빈도분석

상담에 대한 태도(이세은, 최연실, 2009), 아동의 다문화 경험 및 수용성(장은화, 어주경, 2013), 그리고 학부모의 사이버 불링에 대한 인지(홍경선, 2014)로 나타났다. 나머지 한편은 정문자와 김윤경(2010)의 연구로, 이들은 기존에 가족 상담을 받은 사례들을 중심으로 내담자의 주호소 문제, 치료기법, 상담횟수, 종결 유형 및 치료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 (2) 변인 간 관계 검증

특정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는 경험적연구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연구로 지난 10년 동안 총 71편의 논문에서 사용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연구들을 연구대상, 연구 주제,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에 따라 상세분석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있다. 각 연구에 사용된 분석 방법을 표기함에 있어 본 연구는 각 연구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분석 방법 혹은 가장 주요한 분석 방법만 제시하였고, 대부분의 논문에 기본적으로 포함된 빈도분석, 상관분석 등은 생략하였다. ANOVA, ANCOVA,  $\chi^2$ 검정 등은 집단 간 비교로 분류하였고, 위계적/계층적 혹은 중다회귀분석 등 다양한 회귀분석들은 모두 회귀분석으로 기술하였다. 단,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변인 간 관계를 조명한 경우에는(종속변수가 범주형 변인인 경우 이 분석이 사용됨) 로지스틱 회귀분석이라 명시하였다. 이는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선형회귀분석이 그 통계에 내재한 기본 가정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었다. 한편, 선형회귀분석을 바탕으로 한 매개효과 검증의 경우에는 경로분석(path analysis)으로 표기하였다. 그 외의 분석방법으로 자기-상대방 의존성 분석(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 위계적 선형모형,

요인분석, 다층분석이 사용되기도 했는데, 이들은 해당 분석방법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여 표기하였다.

분석방법과 더불어 해당 연구들의 연구대상에 따른 상세 분석도 실시하였다. 결과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총 71편 논문을 연구대상을 기준으로 부부/남녀나 부모-자녀 등과 같이 복수인 경우와 기혼여성, 학생, 노인 등과 같이 단수/개인인 경우 둘로 나누었을 때 각각 26편(36.6%)와 45편(63.4%)으로 나타나 개인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자의 경우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 $n=17$ )가 다른 대상들( $n=9$ )에 비해 월등히 많았고, 개인이 대상인 연구들의 경우 중·고등학생( $n=13$ )과 대학생( $n=8$ )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 척도 개발 및 검증

척도의 개발이나 기존 척도의 심리측정적 속성(신뢰도, 타당도)의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는 총 3편으로 확인되어 최근 10년 동안 이를 목적으로 진행된 가족치료 연구의 수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에 포함된 척도의 개발 및 검증에 해당하는 연구는 다음과 같은데, 먼저 박진희, 김유숙, 이운선(2013)은 가족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 척도를 개발하였고, 김은정, 강명수, 김덕일(2015)은 기존 PREPARE/ENRICH 검사의 하위 검사로 포함된 SCOPE 성격검사의 타당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조은숙(2016)은 가족행복지수를 개발하였고 건강가정사업에서의 활용을 위해 이를 시범 적용한 연구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한국가족치료학회지 분석을 통한 가족치료 연구의 동향분석: 비치료연구를 중심으로

〈표 4〉 양적 경험적연구 중 변인간 관계 검증 연구의 분석(2008-2018년)

저자	연구대상	연구제목	분석방법
1 하상희 (2008)	대학생자녀+ 부모547쌍 1,641명	부모와 자녀세대의 원가족 건강성이 대학생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경로분석
2 안창현·김진이 (2008)	결혼10년 미만 부부 86쌍	부부의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및 가족 응집성·적응성과 갈등대처방식 간의 관계	회귀분석
3 송자경(2009)	간절아동가족 모 141명	가족강점이 간절아동 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회귀분석
4 남순현 (2009)	기혼여성 677명	기혼여성의 성과 심리적 행동감 간의 관계: 성교부부 기혼여성과 비성교부부 기혼 여성 비교	회귀분석
5 도은숙·정현숙 (2009)	상담자 121명	상담자 소진 관련 변인 연구	요인분석, 회귀분석
6 김갑숙·전영숙· 이철우 (2009)	고등학생 275명	청소년의 부모 애착, 자아분화,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경로분석
7 최희정·이인수 (2009)	정신장애인+ 가족103쌍	가족탄력성이 정신장애인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능력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8 황미진·진유준· 김병수 (2009)	대학생 370명	대학생이 지각한 원가족 건강성과 자기분화 수준이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9 장영애·박정희 (2009)	유아의 모 110명	어머니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유아 간 애착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10 김세련·이인수 (2010)	유자녀 부부 158쌍	사타어성장모델의 일치성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11 장은경·최연실 (2010)	중·고교생 578명	중·고생 휴대전화 고의준군과 저의준군에서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학교생활 변인, 가족기능의 차이	집단간 비교
12 김민정 (2011)	국제결혼이주여성 213명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가정폭력이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로분석
13 유희남·김영희 (2011)	기혼여성 700명	원가족 분화경험이 기혼여성의 자아분화와 부부갈등 대처행동 및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경로분석
14 장영애·이영자 (2011)	초등고학년생240명+ 부모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15 오은희·이인수 (2012)	기혼남녀 297명	기혼 남녀의 내외통제성과 일치성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16 최정아 (2012a)	초등 4학년생 2,844명(1-5차년도)	청소년기 우울의 발달적 변화에 대한 부모인지 및 자기개방의 종단적 영향: 위계적 선형모형(HLM)을 이용한 분석	HLM
17 장영애·이영자 (2012)	3-5세 유아의 모 220명	어머니의 양육행동,양육스트레스 및 부부갈등이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18 오현주·최승미 조 현·권정혜 (2012)	무자녀 부부 186명 (98쌍)	회피애착이 신혼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과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APIM
19 조성희·박소영 (2012)	취업모 593명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로분석
20 문수경·박서영 (2012)	노인 800명	노인의 근로활동 참여여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족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경로분석
21 최정아 (2012b)	중고등학생 7,187명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대한 잠재프로파일분석 및 개인, 부모, 또래 영향요인 검증	잠재프로파일 분석
22 최인호·김진이 (2013)	중2학년생 558명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남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표 4〉 양적 경험적연구 중 변인간 관계 검증 연구의 분석(2008-2018년) (계속 1)

저자	연구대상	연구제목	분석방법
23 연규진·연분희·양지용(2013)	유자녀 부부 370쌍	부부관계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과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 다층모형을 이용한 자기 효과와 상대방효과 분석	APIM HLM
24 박현미·장석진(2013)	청소년 969명	가족지지와 청소년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경로분석
25 김승옥·정혜정(2013)	기혼남녀 266명	기혼남녀의 마음챙김과 일치성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경로분석
26 윤명숙·김남희(2013)	이혼가족자녀 133명+사별가족자녀 145명	부모상실 대학생의 외상 후 성장 영향요인: 사별, 이혼가족을 중심으로	회귀분석
27 조성경·최연실(2014)	대학생 351명	남·녀 대학생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의 영향	회귀분석
28 송혜란(2014)	유아의 모 260명	어머니의 대상관계와 자녀양육행동의 관계: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경로분석
29 임현진·박정윤(2015)	결혼초기부부 145쌍	결혼초기 부부의 부부관계신념 지각과 적응이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 만족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30 이은정·여주경(2015)	고1학년생 562명	고등학생이 지각한 스트레스, 충동성 및 부모의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31 이승진·이인수(2015)	성인자녀 201명	부모애착과 자녀 문제음주와의 관계에서 원가족 건강성의 매개효과	경로분석
32 박정윤(2015)	신혼기부부+미취학·취학 자녀부부 570쌍	가족생활주기별 부부관계신념 지각, 유사성, 적응이 부부간 긍정적 행동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33 고정은·이민홍(2015)	65세 이상 노인 2854명	노인의 우울감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족요인과 지역사회 요인 분석	HLM
34 박수진·이인수(2015)	부부 193쌍	부부의 원가족건강성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APIM
35 신새봄·정혜정·황미진(2015)	대학생 341명	대학생이 지각한 원가족 건강성과 자아분화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활 적응을 매개변인으로	경로분석
36 문지혜·정혜정(2015)	대학생 322명	대학생이 지각하는 성장기 폭력 경험과 폭력허용도 및 데이팅 폭력의 관계	경로분석
37 조성희·박소영(2015)	청소년 2,216명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초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회귀분석
38 박은아·윤명숙(2015)	파트너 외도경험자 113명	파트너의 외도경험과 PTSD 관계에서 낙관성의 조절효과	회귀분석
39 오승하·문수경(2015)	한부모가정 255가구	한부모가정의 불안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자 가정과 모자 가정의 집단 간 비교분석	회귀분석
40 박우철(2016)	청소년 398명	부부갈등가족에서 부모자녀친밀유형에 따른 청소년자녀의 불안의 차이	집단간 비교
41 원아름·박정윤(2016)	이성교제성인남녀 411명	이성교제 중인 미혼남녀가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및 이성교제 관계의 질과 결혼이 미지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로지스틱 회귀분석
42 박정윤·장영은·이희윤(2016)	미혼성인남녀 238명	20-30대 미혼남녀의 동거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로지스틱 회귀분석
43 유선영(2016)	이주자 부모 203명	이주자 부모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주자 부모의 적응유연성을 중심으로	회귀분석
44 노영희·김상인(2016)	한부모 2,522명	한부모의 자녀양육어려움, 고용지위, 사회적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부모의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한국가족치료학회지 분석을 통한 가족치료 연구의 동향분석: 비치료연구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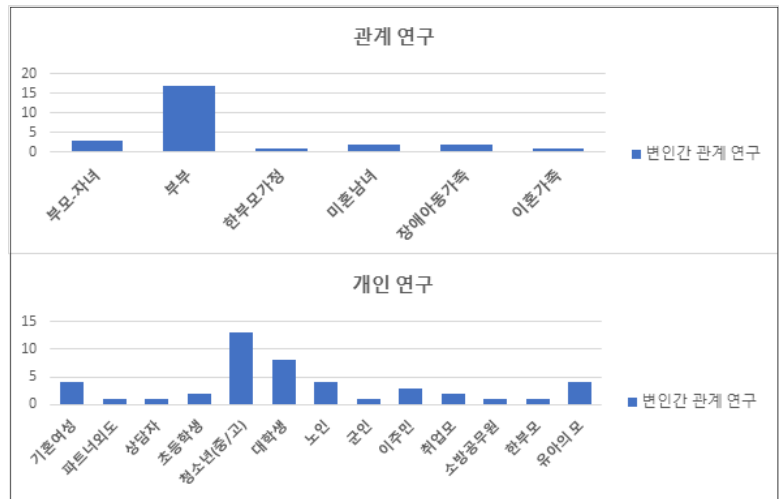
〈표 4〉 양적 경험적연구 중 변인간 관계 검증 연구의 분석(2008-2018년) (계속 2)

저자	연구대상	연구제목	분석방법
45 김은자·정혜정·신유순(2016)	60세 이상 노인 374명	노인의 자기분화와 신체적 건강 및 성인자녀관계가 노인 초월에 미치는 영향 연구	회귀분석
46 박민하·전혜성(2016)	기혼남녀 298명	부부갈등과 부부적응의 관계에서 탈중심화 및 용서의 조절효과	회귀분석
47 이진아·이인수(2016)	기혼남녀 532명	부부관계의 비합리적 신념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자기분화,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경로분석
48 서미아·정진미·이정아(2016)	고교청소년-부 228쌍	정서안정성 및 정서조절력과 부-자녀 애착 관계에서 긍정정서의 매개효과: 청소년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경로분석
49 Kim, Epstein, Moon(2016)	청소년 1,538명	Self-efficacy and Perceived Parental Support/Affection as Mediators of Stressor Risk Factors for Adolescent Internet Addiction in South Korea	경로분석
50 손인봉·최정아(2016)	대학생 307명	대학생의 자살사고에 대한 가족의사소통과 대학환경의 영향 검증	회귀분석
51 정장수·전혜성(2016)	중3학년생 397명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및 아버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52 장영은·박선희(2016)	만3~5세 자녀 모 180명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신념과 역할만족도,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의 관계: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	집단간 비교
53 이미영·권정혜(2016)	신혼부부 40쌍	자기개방과 공감반응이 신혼부부의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54 강부자·최연실(2017)	군부대 장병 229명	군 장병이 인지한 가족건강성이 군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독립의 매개효과	경로분석
55 김진성·전혜성(2017)	대학생 328명	대학생의 내재화 정서행동문제가 부-자녀 갈등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순기능적인 대면 의사소통과 모바일 메신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회귀분석
56 나남숙·이인수(2017)	기혼부부 275쌍	자기분화, 결혼만족도, 헌신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적용	APIM
57 Kim, Epstein, Kim(2017)	청소년 3449명	Life Stresses in Adolescents with Problematic Media Use: The Role of Anger Management in Cyberbullying	로지스틱 회귀분석
58 서미아(2017)	기혼부부 228쌍	남편과 아내의 애착순상 및 정서조절력이 부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델을 활용하여	APIM
59 임금옥(2017)	청소년 2,058명	부모의 과잉기대, 과잉간섭, 비일관적 양육방식과 청소년 우울과의 관계: 청소년 공격성의 매개효과	경로분석
60 정복자·조성희(2017)	부부 182쌍	부부의 마음챙김, 내외통제성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형(APIM) 적용	APIM
61 박우철·유지연·오은정(2017)	초등학교생 660명	부부폭력가족에서 부모자녀친밀유형에 따른 아동학대의 차이	집단간 비교
62 문수경(2017)	65세 이상 노인 10,451명	노부모와 비동거 자녀와의 만남 빈도, 상호 호혜적 정서지원, 그리고 우울과의 관계	경로분석
63 구혜진·서미아(2017)	중년기 여성 327명	중년기 여성의 애착순상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용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로분석
64 오지훈·김현수(2017)	유아자녀-결혼이민자모 54쌍	다문화가정 이주민 어머니의 문화적응과 유아자녀의 언어 및 사회 능력과의 관계	회귀분석
65 김진희(2017)	대학생 621명	대학생의 성인애착 유형과 이성관계: 관계중독, 친밀감 두려움, 대인관계 유능성 중심으로	집단간 비교 요인분석
66 이은진·이인수(2017)	20~40대 부부 192쌍	배우자 부모와의 갈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의 조절효과: APIM 모델 적용	APIM
67 김사라·김유숙(2017)	소방공무원 700명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가족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회귀분석

〈표 4〉 양적 경험적연구 중 변인간 관계 검증 연구의 분석(2008-2018년) (계속 3)

저자	연구대상	연구제목	분석방법
68 양준석·유지영 (2018)	중년여성 395명	가족사별 중년여성의 애착유형이 역경 후 성장에 이르는 과정: 가족탄력성, 스트레스 적극대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로분석
69 고미지·박우철 (2018)	만4~5세 자녀의 취업모 106명	맞벌이 가족 내 부부적응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조모 양육행동의 조절효과	회귀분석
70 변지영·양해정 (2018)	기혼남녀 338명	자기자비와 부부관계의 질: 부부 조망수용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매개변인으로	경로분석
71 김정은 (2018)	청소년	청소년의 디지털 기기 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한 중독 상호작용 분석: 종단 연구를 통한 기기 간 상호작용 고찰	회귀분석

APIM =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HLM =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그림 1) 연구대상에 따른 변인간 관계 연구의 분류(2008-2018년)

2) 질적 경험적연구

질적연구와 가족치료의 적합성이 폭넓게 인식되면서 가족치료 연구에서도 질적연구방법론을 사용한 논문들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창간호에서 2008년 상반기까지 13편, 22.4%였던 질적연구는 이후 2018년 상반기까지 총4편, 38.8%로, 이는 총 논문 수(창간호~2018년 상반기) 384편 중 63편으로 16.4%를 차지하는 비율로 타 영역에 비해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마다 발표되

는 논문의 편차가 있어 뚜렷한 경향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현상발견이나 탐색 및 이론개발을 질적연구방법의 논문으로 분류한 서진환(2008)의 연구에서 사용된 구조와 내용을 참조하여 4개의 영역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질적연구 논문들의 4개 하위영역은 연구대상 및 주제, 연구방법, 연구의 질에 대한 평가, 그리고 연구윤리로 개별 논문의 주제와 특징은 <표 5>와 같다.

한국가족치료학회지 분석을 통한 가족치료 연구의 동향분석: 비치료연구를 중심으로

<표 5> 비치료 경험적연구 중 질적분석을 수행한 연구의 특성 분석(2008-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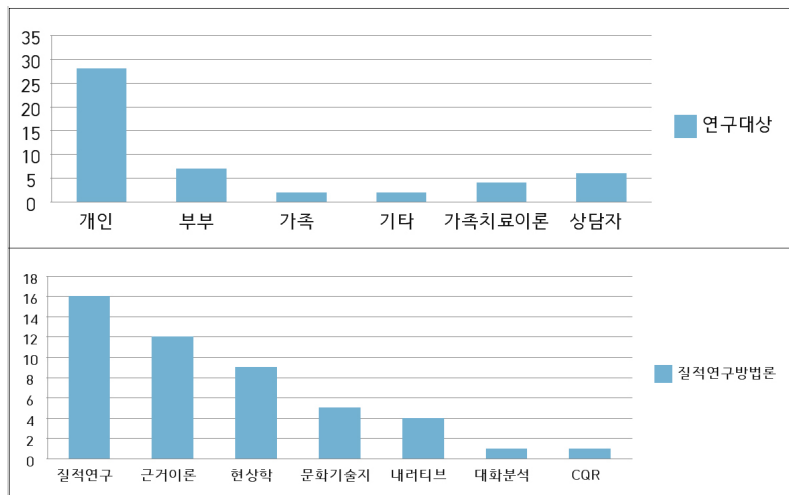
영역	저자	연구제목	연구/분석 방법	연구의 질 평가 (신뢰성/타당도)	연구 윤리
개 인	김병수 (2009)	외도경험 여성 10명 남편의 외도를 경험한 아내의 이혼에 대한 태도 사례 연구	질적연구	이론적 민감성, 신뢰성	
	노미화·이인수 (2011)	비혼여성 15명 비혼 여성의 가족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근거이론	외부자 검증	
	양소남(2011)	직업모 10명 일하는 어머니의 일-가족생활 양립을 위한 전략	질적연구	신뢰성, 엄격성	윤리적 고려
	엄혜정·이종우 (2011)	비만여대생 6명 비만 여대생의 원가족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현상학	Guba & Lincoln(1985)	윤리적 고려
	윤명숙·최혜정 (2011)	성학대 피해 아동 6명 성학대 피해 아동의 생존과정	근거이론	엄격성	윤리적 검토
	천미영·김희정 (2011)	초등고학년 7명 조손가정 아동의 적응유연성에 관한 질적 연구	질적연구	신뢰도, 타당도	연구 윤리
	최혜정(2012)	10대청소년 7명 부부폭력을 목격하고 자란 자녀의 경험에 관한 연구	현상학	엄격성	윤리적 이슈
	김혜선·박태영 (2012)	친정모양육 지원받는 여성 9명 옹서(장모-사위) 관계에서 여성들의 경험에 관한 연구	현상학	Guba & Lincoln(1981)	윤리적 고려
	양혜원·전명희 김희수 (2014)	프로그램 참여자 23명 부모 이혼에 대한 아동기 자녀의 경험-지역사회복지관 이혼가족 자녀 집단 프로그램 참여 아동을 중심으로	질적연구	신뢰도	
	고영수 (2015)	내담자 12명 사타어 변형체계치료를 경험한 내담자의 변화과정 연구	근거이론	Padgett(1998)	
	최혜정 (2015)	성폭력경험 여성10명 성폭력 경험 여성의 용서과정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	엄격성	윤리적 고려
	박영현·박승민 (2015)	기혼자 6명 어린 시절 상처 치유 경험과 부부관계 변화과정 연구: 내면아이치유 집단상담 참여 경험을 중심으로	현상학	신뢰도, 타당성	윤리적 고려
	이경미·최연실 (2015)	자살유가족 6명 자살자 유가족의 애도과정 경험에 관한 연구	현상학	이론적 민감성	
	이정인·이인수 (2016)	미혼모 7명 양육미혼모의 가족경험에 관한 연구: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근거이론	신뢰성	연구 윤리
	구자경 (2016)	성인자녀 1명 한재혼가정 성인자녀의 내러티브 정체성 탐구	내러티브	신뢰성, 타당성	
	남수경·김명환 (2016)	성인 1명 '부모화된 자녀' 경험에 관한 협력적 자문화기술지	문화기술지	Duncan(2004)	
	정선이·김현주 (2017)	중년기남성 12명 섹스리스 부부의 결혼유지 과정: 중년남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근거이론	Guba & Lincoln(1981)	IRB 심의
	문혜린·김명환 (2017)	성인 1명 불안정 애착으로 인한 '관계외상'에 관한 협력적 자문화기술지	문화기술지	Duncan(2004)	연구 윤리
	양정훈·김진숙 (2017)	유방암 생존자 8명 절제술 받은 여성유방암 생존자의 부부적응에 대한 경험 연구	현상학	엄격성: Padgett(1998)	윤리적 고려
	박선영·정혜정 이지선 (2017)	중년기여성 7명 배우자의 분노조절 문제에 대한 중년부인의 경험 연구	현상학	Lincoln & Guba(1985)	
손고은·김명환 (2017)	성인 1명 부모화된 자녀의 정서회복과정에 대한 협력적 자문화기술지	문화기술지	지도교수 피드백		
정연자·이인수 (2017)	여성 7명 사고사로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외상 후 성장 경험	근거이론	신뢰성: 삼각검증		

〈표 5〉 비치료 경험적연구 중 질적분석을 수행한 연구의 특성 분석(2008-2018년) (계속 1)

영역	저자	연구제목	연구/분석 방법	연구의 질 평가 (신뢰성/타당도)	연구 윤리
개인	장은정 (2017)	미혼모 10명 재가 미혼모의 홀로서기 경험 연구: 탈시설 과정을 중심으로	질적연구		윤리적 이슈
	임춘희·이혜숙 (2017)	재혼여성 2명 중년 여성의 이혼 후 재혼 노모에 대한 용서 연구	질적연구	타당성	윤리적 고려
	이영숙·김현주 (2017)	한부모가정 자녀 10명 남성 한부모 가정 자녀의 적응과정: 20대 자녀의 경험을 중심으로	근거이론	Guba & Lincoln(1989)	
	김경희·정혜정 (2017)	은퇴자 남성 5명 베이비부머 은퇴 남성의 내러티브 정체성 탐구: 고학력 중산층 은퇴자를 중심으로	내러티브	Lincoln & Guba(1985)	윤리성 검토
	장희숙·황순찬 (2017)	부부폭력 가해여성 5명 부부폭력 가해여성의 체험: 생존폭력의 맥락적 의미	질적 연구	타당성, 신뢰성	
부부	유명숙·서미아 (2018)	이혼위기 극복남성 3명 이혼위기를 극복한 중년기 남편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내러티브	Lincoln & Guba(1982)	
	김경희·정혜정 (2012)	중년 기혼 남녀 6명 중년 남녀의 내러티브에 나타난 부부 정체성 연구	내러티브	Lincoln & Guba(1985)	
	김금자 (2012)	이혼위기 부부사례 이혼위기 부부의 가족치료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적 사례연구	문화기술지	타당성과 신뢰성	
	강희숙·양정옥 (2012)	기혼남녀 15명 이혼위기에 처한 부부들의 부부갈등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근거이론	Lincoln & Guba(1985)	
	김효숙·이인수 (2015)	남녀 12명 결혼생활에서의 섹스리스 경험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	신뢰도: 동료검토	윤리성
가족	고경자·정혜정 (2017)	농인 15명 농인(농인)의 부부적응 유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근거이론	연구의 엄격성 연구자 민감성	윤리적 고려
	김수지·최지원 (2017)	부부 6쌍 혼전 임신 부부의 이혼 과정에 대한 해석현상학적 연구	현상학	Creswell & Miller(2000)	
	최지원·유혜원 (2018)	부부 5쌍 지해로운 중년 부부의 부부관계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질적연구	Creswel & Miller(2000)	윤리적 검토
	조은숙·남영주 (2010)	6가족(9명)+ 포커스그룹 7명 초국적 분가부부의 섹슈얼리티와 친밀성: 기러기 가족 현상을 통해 본 한국인의 부부관계 일 특성	질적연구	진실성과 타당성, 교차검증	
	이혜숙·고경자 (2010)	가족구성원 11명 농인의 가족 상호작용에 관한 문화기술지 연구	문화기술지	타당성	
기타 가족	박일환 (2016)	당뇨병환자 47명 당뇨병 환자의 질병체험에서 나타난 당뇨병 관리를 위한 가족관계의 특성	질적연구		
	이희운·박정윤 (2017)	동거자 10명 합의적 질적분석을 활용한 동거 가치관에 관한 연구	CQR	CQR의 3단계 감수과정	
가족치료 이론	이선혜 (2009)	수업수강 대학원생 9명 이야기치료 문화의 이해를 위한 모건서베이의 적용	질적연구		
	정혜정 (2012)	해결중심치료 사례 해결중심 단기 가족치료 사례에 대한 대화분석 연구: 모자갈등 사례에 기초한 치료자 개입을 중심으로	대화분석	신뢰성, 타당성	
	최연실 (2012)	상담가 5명 동료수퍼비전에서의 평가도구 활용 가능성 탐색: 미시적 상담 슈퍼비전 모델(msm)에 근거한 상담면접평정 양식(cirf)의 사용을 중심으로	질적연구	신뢰도	
	이현주·정문자 (2017)	ADHD 아동 모 10명 통합적 가족놀이치료를 통한 ADHD 아동 가족의 가족체계 변화 및 치료적 요인	질적연구	Guba & Lincoln(1985)	윤리적 문제

<표 5> 비치료 경험적연구 중 질적분석을 수행한 연구의 특성 분석(2008-2018년) (계속 2)

영역	저자	연구제목	연구/분석 방법	연구의 질 평가 (신뢰성/타당도)	연구 윤리
상 담 자	신영화 (2010)	실천가 11명 다문화가족의 역량강화접근	질적연구	확실성과 엄격성 정직성	
	전영주 (2012)	대학원생 14명 녹화 슈퍼비전에서 가족치료 훈련생의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질적연구	신뢰도와 타당도	
	고미영 (2014)	상담자 6명 한국적 상담 현장에서의 반영팀의 활용에 대한 상담자의 경험연구	질적연구	엄격성, 신뢰성	
	조은숙·최연실 김민경 (2015)	다문화가족 센터상담자 5명 다문화가족상담 인력양성과정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다문화가족 대상 상담업무 현황과 종사 인력의 교육 요구도를 중심으로	질적연구	타당성, 객관성	
	최중진 (2016)	임상실천가 12명 근거이론을 통해 살펴본 해결중심치료의 실천: 통합접 근의 등장	근거이론	Guba & Lincoln(1985)	윤리적 고려
	김성희·엄영숙·d 이아람 (2017)	상담자 8명 가족상담사의 윤리적 이슈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 구	현상학	교수, 동료연구자 피드백	



(그림 2) 질적연구의 연구대상 및 질적 연구방법론(2008-2018년)

(1) 연구대상 및 주제

질적연구의 대상은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 28개, 부부 7개, 가족 2개, 기타 가족 2개로 개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가족치료 이론 4개, 상담자 6개의 연구 총 49편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결과에 대한 요약은 [그림 2]와 같다.

개인 및 가족 영역은 연구주체에 따라 개인 및 가족의 경험, 가족관계 특성, 변화과정 및 개입요인 분석, 정체성 및 가치관 4개 분야에서 진행됨을 볼 수 있다. 개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의 주제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이 가장 많았다.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경험들을 탐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연구

들로 비만 여대생의 원가족 경험(엄혜정, 이종우, 2011), 부부폭력을 목격하고 자란 자녀의 경험(최혜정, 2012), 배우자의 분노조절 문제에 대한 중년부인의 경험(박선영, 정혜정, 이지선, 2017)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가족관계 특성’ 탐구는 특정 상황에서 가족구성원의 관계가 어떻게 맞물려 변화해 가는지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로 농인의 가족 상호작용(이혜숙, 고정자, 2010), 초국적 분거부부의 섹슈얼리티와 친밀성(조은숙, 남영주, 2010), 당뇨병환자의 질병체험에서 나타난 당뇨병 관리를 위한 가족관계의 특성(박일환, 2016) 등이다. 변화과정 및 개입요인 분석 연구는 개인과 가족의 성장과 변화, 가족치료 경험 후 변화과정에 초점을 둔 연구로 나누어진다. 성학대피해 아동의 생존과정(윤명숙, 최혜정, 2011), 자살자 유가족의 애도과정 경험(이경미, 최연실, 2015), 성폭력 경험 여성의 용서과정(최혜정, 2015) 등은 개인의 변화과정인 반면, 이혼 가족치료 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도 이루어져 왔다. 이 분야의 연구들은 내담자와 상담자에게 적용하는 방식과 가족치료 사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해당하는 논문은 이야기치료 문화의 이해를 위한 모건서베이(이선혜, 2009), 해결중심 단기 가족치료사례에 대한 대화분석(정혜정, 2012), 상담면접평정양식 사용(최연실, 2012), 통합적 가족놀이치료(이현주, 정문자, 2017) 등이다. 가족상담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도 6편이 이루어졌다. 녹화 슈퍼비전에서 가족치료 훈련생의 경험(전영주, 2012), 다문화가족상담 인력 양성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조은숙, 김민경, 최연실, 2015), 가족상담사의 윤리적 이슈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김성희, 엄영숙, 이아람, 2017)이다.

## (2) 연구방법

연구 패러다임 및 연구 전통을 밝히는 것은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개발하는 데 필수적 측면이며(Hays & Singh, 2012), 연구목적은 구체적인 연구방법의 선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분석 논문들의 연구방법의 종류별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전체 논문 중 질적연구의 전통만을 밝히거나 패러다임을 분명히 하지 않아 질적연구로 분류된 논문이 16편으로 가장 많은 빈도 수를 차지하였으며, 근거이론( $n=12$ ), 현상학( $n=9$ ), 문화기술지( $n=6$ ), 내러티브( $n=4$ ), 대화분석( $n=1$ ), CQR( $n=1$ ) 순으로 나타났다. 2008년 상반기까지 근거이론(50%)에 편중되었던 연구방법은 현상학, 문화기술지, 내러티브, CQR 등 점차 다양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동일한 질적연구방법론을 선택하더라도 자료분석 방법의 적용이 보다 세분화되어 가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현상학 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들은 현상을 경험하는 개인의 경험 혹은 본질을 이해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현상에 대한 기술과 요약인지 현상에 대한 일반화된 해석에 대한 관심 여부인지에 따라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을 적용하거나 Colaizzi, 혹은 van Manenc의 해석학적 현상학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 (3) 질적 분석을 활용한 연구의 질에 대한 평가: 신뢰성과 타당도

연구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측정하는 준거로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질적 분석방법을 활용한 연구는 이를 평가하기 위한 수단 혹은 기준으로 신뢰성, 타당도, 연구의 엄격성 등을 사용해 오고 있다.



대표적인 평가기준은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신뢰성(credibility), 전이가능성(transferability), 의존성(dependability), 그리고 확증성(confirmability)을 검증하는 방식이다. Creswell(2012)은 이외에도 삼각검증(triangulation), 연구자 보고, 부정적인 사례 분석, 반영, 두꺼운 묘사(thick description), 동료검토(peer review), 외부자 검증, 분석의 복잡성(complexity of analysis), 장기간 참여(prolonged engagement) 그리고 지속적 관찰(persistent observation)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석된 논문 49편 중 Lincoln과 Guba(1985)의 기준을 적용한 사례가 11편으로 가장 많았고 Creswell과 Miller(2000), Duncan(2004), Padgett(1998)이 제시한 기준을 사용한 논문이 각각 2편, 그리고 COR 감수단계 1편이었다. 특정 연구자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n=31$ ) 대다수의 논문들은 질적연구의 질에 대한 평가를 위해 다양한 기준점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었다.

#### (4) 연구윤리

질적 분석 연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준수하면서 연구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현장작업이나 인터뷰 과정, 연구 참여자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외부자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복지와 안녕이 어떻게 영향 받을 수 있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총 49편의 논문 중 윤리적 엄격성 혹은 윤리적 이슈를 보고한 논문은 20편으로 이혜숙와 고경자(2010)의 보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윤리적 고려는 연구 참여자의 자발적 동의, 기밀유지, 상호 호혜성을 기준으로 이를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연구동의서, IRB 승인, 연구

참여자 검토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윤리는 연구들에서 윤리적 엄격성(이혜숙, 고경자, 2010), 윤리적 고려(양소남, 2011), 윤리적 검토(윤명숙, 최혜정, 2011), 연구 윤리(이정인, 이인수, 2016), 윤리적 문제(이현주, 정문자, 2017), 윤리적 이슈(장은정, 2017) 등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기술되고 있다. 이는 연구자가 연구방법, 연구 작업과정, 연구참여자에 대한 연구 윤리를 적용하고 이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의 차이라고 보여진다.

#### 3) 문헌연구

문헌연구는 특정 주제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제시하거나 그에 관한 전반적인 탐색/이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10년 동안 발간된 논문들 중 문헌연구로 분류되는 논문은 총 27편으로 집계되어 서진환의 2008년 경향분석연구에서 제시된 이전 10년(물론 서진환의 연구 기간은 총 16년이나 이 연구 분석 시작 전 10년인 1999~2008년 기간의 문헌연구의 수를 집계해보면 28편이었음)의 경우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편은 영어로 작성되었다.

각 문헌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하여 해당 논문들을 모두 5개의 하위영역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러한 분류에 있어 2008년 연구에서 사용된 구조를 참조,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류된 5개 영역은 가족치료 주요 개념 및 모델의 분석, 가족치료의 통합/확장 및 적용, 실천분야 현황조사 및 방안제시, 성과연구 분석, 그리고 특정개념 및 현상에 대한 탐색으로 구성되었다. 문헌연구를 5개 영역에 따라 분류하여 주제별로 요약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 문헌연구의 분석(2008-2018년)

분류	주제	연구자
가족치료 주요개념 및 모델의 분석	가족치료학회지 연구경향 분석	서진환(2008)
	가계도 활용	박정희, 김유숙(2009)
	대화분석 방법	정혜정(2012)
	이야기 치료의 발달	고미영(2010)
	포스트모던 실천원리	고미영(2011)
	Narrative Therapy in Korea	Lee(2014)
	의사소통 과정의 치료적 유형화	김병훈(2015)
	가족치료의 한국적 적용	박우철, 김수지(2015)
	해결중심단기치료의 발달	최중진(2017)
	해결중심단기치료 미시분석	최중진, 백중환(2017)
가족치료의 통합/확장 및 적용	가족치료와 긍정심리학 연계	최연실(2015)
	가트만치료와 정서중심치료의 통합	송미화, 전영주(2013)
실천분야 현황조사 및 방안제시	다문화가족의 복지와 가족상담	최연실(2011)
	가족상담사의 국가자격제도화 연구	조은숙, 최연실, 김민경(2015)
	다문화가족상담 인력양성 연구	최연실, 조은숙(2017)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상담 실천	정혜정(2015)
	이혼 후 동거 위한 교육과 상담	임춘희(2015)
성과연구 분석	가족상담/치료의 현황과 과제	신혜중(2015)
	국내 가족치료 성과연구 분석 (1993~2008)	서진환(2010)
	국내/외 가족치료 성과연구 분석 (2005~2010)	박주은(2014)
특정개념 및 현상에 대한 탐색	사별가족치료 프로그램 효과 분석*	양준석, 이정은, 유지영(2017)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메타분석	서지은, 김희정(2012)
	성폭력 생존자의 적응유연성	최혜정(2014)
	Independence of Korean Youth	Chung(2014)
	해석의 과정으로서의 부부정체성	강진아(2015)
관계 내 헌신의 이해	조성봉(2017)	

\* 치료효과성을 탐색하기 위한 메타분석연구.

(1) 가족치료 주요개념 및 모델의 분석 이 하위영역에는 가족치료에서 사용되는 주요 개념들이나 가족치료 모델들에 대한 탐색 및 그것들이 국내에서 어떻게 발전, 사용되어 왔는지를 살펴본 연구들이 포함되었다. 가족치료의 주요 개념 관련한 연구들에는 임

상현장에서 가계도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박정희, 김유숙, 2009)나 대화 및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김병훈, 2015; 정혜정, 2012)가, 가족치료 모델에 관해서는 해결중심단기치료를 대상으로 한 문헌연구(최중진, 2017; 최중진, 백종환, 2017)가 2편, 이야기치료에 관한 연구(고미영, 2010; Lee, 2014)가 2편 씩 포함되었다. 치료적 접근을 넓은 시각에서 조명한 연구들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포스트모던의 관점이 어떻게 한국의 가족치료에 적용되어 왔는지(고미영, 2011)와 가족치료의 한국적 적용에 관한 연구(박우철 & 김수지, 2015)가 이에 해당된다. 가족치료학회지에 실린 연구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동향분석연구(서진환, 2008)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 (2) 가족치료의 통합/확장 및 적용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가족치료 모델들은 그동안 가족치료의 확장과 다양한 치료모델들의 개발과 함께 새로운 모델들로 통합되어 사용되어져 왔으며, 무엇보다 그 중 많은 새로운 통합치료모델들은 그 효과성을 연구들을 통해 입증해 왔다. 그렇기에 가족치료 모델들 간의 통합에 관한 연구, 혹은 가족치료(혹은 특정 가족치료모델)와 심리학(혹은 특정 임상모델이나 접근방법)과의 이론적/실천적 통합을 탐색한 연구들은 가족치료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확장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난 10년을 살펴보았을 때 국내에서 연구를 통해 이러한 치료이론/모델 간의 통합/연계를 시도하거나 탐색한 연구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총 2개의 연구가 행해졌는데, 하나는 이혼 전 상담에서 가트먼 접근과 정서중심치료를 통합한 모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송미화, 전영주, 2013)가,

다른 하나는 가족치료와 긍정심리학의 연계에 대해 다룬 연구(최연실, 2015)가 있었다.

#### (3) 실천분야 현황조사 및 방안제시

실제 가족치료가 어떤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거나, 앞으로 필요한 분야에서 가족치료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탐색하는 것은 가족치료가 국내의 다양한 실천현장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구체적이고 구별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난 10년 가족치료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로서 다루어진 영역에는 다문화 가족상담(최연실, 2011; 최연실, 조은숙, 2017)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가족 위기대처 상담(정혜정, 2015)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혼 후 동거에 대한 교육 및 상담에 대한 연구(임춘희, 2015)도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가족상담 전반에 관한 국내 현황 및 앞으로 과제에 대한 연구(신혜중, 2015), 가족상담사의 국가자격화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조은숙, 최연실, 김민경, 2015)도 함께 수행되었다.

#### (4) 성과연구 분석

가족치료 성과연구들(outcome studies)을 종합하고 가족치료의 효과성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가족치료가 국내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발전/확장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연구에는 특정 주제(부부관계, 자녀양육 등)에 대한 상담이나 특정 치료모델을 사용해서 진행된 연구들에 대한 분석이 포함된다.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가족치료 성과를 종합하여 분석한 연구로 먼저 국내에서 2008년 이전까지 발표된 모든 성과연구들을 분석한 논문(서진

환, 2010), 그리고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국내외 가족치료 학술지에 실린 성과연구들을 분석한 논문(박주은, 2014)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특정 치료 프로그램의 동향에 대한 분석도 있었는데, 양준석과 동료들은 사별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연구 동향 및 그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양준석, 이정은, 유지영, 2017).

#### (5) 특정개념 및 현상에 대한 탐색

마지막으로, 개인 혹은 관계(부부, 가족 등)와 관련된 개념들에 대한 종합적, 구체적인 탐색을 다룬 연구들도 문헌연구로 분류하였다. 먼저 개인의 경험에 초점을 둔 연구에는 성폭력 생존자의 적응 유연성(최혜정, 2014) 및 가족체계의 관점에서 한국 청소년의 자립(independence)에 대한 탐색이 있었고(Jeong, 2014), 관계적 측면에서는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메타분석(서지은, 김희정, 2012)이 실시되었으며 해석의 과정으로서의 부부의 정체성(강진아, 2015) 및 남녀 관계 내 헌신의 의미(조성봉, 2017)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진행되어 해당 주제들에 대한 개념적 및 적용적 의미를 자세히 다루었다.

##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한국가족치료학회에 게재된 비치료연구를 유형별, 주제/연구목적별, 대상군별, 연구방법론별, 분석방법론별로 상세 분석함으로써 이 분야 연구의 동향과 특징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를 통해 가족과 가족치료 분야의 발전을 위한 연구적 차원에서의 틈과 방향성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

로부터의 주요 발견을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적 분석을 활용한 경험적연구와 관련한 분석 결과를 논해 볼 수 있다. 국내 가족치료의 실천과 연구에 있어 연구된 주제나 대상, 관련자의 인식 수준, 임상 실천의 실태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가족치료가 실제 어느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더 나아가 이 분야 발전 방향성을 논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즉 다양한 가족치료 영역에서의 실태 및 현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치료/개입 대상의 탐색 및 구체화, 가족치료자 양성 체계의 개발 및 슈퍼비전의 체계화, 그리고 효과적인 치료 모델의 개발 및 모델/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치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의 한국가족치료학회에 게재된 실태/현황 조사 연구 수는 5편에 머무르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며, 이 점은 이 분야 종사자에게 많은 각성을 불러일으킨다. 추후 이 분야 연구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요구된다 하겠다. 더불어, 추후 실태/현황 연구는 내담자들의 부부/가족 상담에 대한 시각과 기대, 가족치료사들이 실제 가족/부부치료 현장에서 선호하는 접근, 수련 방식과 그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임상실천에 있어서 가족치료사들이 고려·준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슈퍼바이저는 슈퍼바이저를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지, 연구자들은 어떤 영역 연구를 보강해야 할 것인지와 같은 매우 실질적인 질문들에 답을 제공해 줄 것이다.

양적 분석을 활용한 경험적연구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연구 유형은 변인간 관계를 탐색하거나 변인간 관계에 관한 모델을 검

증하는 연구들이었다. 변인 간 관계의 검증을 시도한 양적 연구들은 지난 서진환(2008)의 고찰에서 파악한 것보다 그 수가 50%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과 가족치료 내 학문적인 관심이나 연구의 접근방법/실천에 있어서의 전반적 변화를 반영한다기 보다는 2015년 학회지 명칭 변경(한국가족치료학회지에서 가족과 가족치료로 명칭 변경)과 함께 최근 3, 4년간 치료적 개입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양적 연구들이 전보다 월등히 더 많이 포함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표 2>참조). 이를 고려할 때 이러한 비치료 양적 연구들의 증가 추이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비치료 양적 분석방법을 활용한 연구의 증가와 관련하여 논의해야 할 쟁점 중 하나는 본 학회지에 게재된 비치료 양적 연구들의 가족적/관계적 맥락에서의 임상적, 학문적, 정책적 함의 및 영향력에 관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급증한 비치료 양적 연구들은 그 2/3 정도가 개인을 대상으로 한 논문들이었고, 그 중 대부분이 중, 고등,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었다. 물론 이들 개인 대상의 연구들도 가족 관계/경험을 다루고 있어 가족치료 영역에 임상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개인 대상의 연구가 가족이나 커플/부부 대상의 연구보다 더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부부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았다. 반면, 부모-자녀 쌍(dyad)을 연구대상으로 한 경우는 매우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본 학회지가 더 다양하고 관계중심적 비치료 양적 연구들을 담아내기 위해 대상군을 다변화시킬 필요

가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여러 가족 구성원들, 커플의 양편, 중·노년기 성인들을 적극적으로 연구대상으로 포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다양성 추구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가족치료 영역의 연구자들에게 달려 있다. 이에, 가족치료 연구자들의 연구대상 다양화와 관계기반 연구에 대한 자발적 관심과 노력을 요구하는 바이다.

가족의 역동이나 기능을 측정하거나 가족치료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나 척도의 타당화/표준화 작업은 추후 가족치료의 지식 기반을 넓히고 임상 실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초 작업이라 하겠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파악된 척도 개발 및 검증 연구는 지난 10년간 단지 3편으로, 이는 같은 기간 다른 임상 혹은 실천 위주의 학회지(예,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임상심리학회 등에서 편찬하는 학회지)에 게재된 척도 개발 및 검증 연구 수와 비교할 때 상당히 적은 수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작업이 구인에 대한 연구가의 깊은 이론적·실무적 이해, 심리측정론적 지식, 연구 소양과 유능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 예측된다.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척도 개발 및 검증 관련한 가족치료학회지의 성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부족해 보이며, 따라서 이 영역 가족치료연구자들의 더 많은 관심과 재고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비치료 경험적연구 중 질적 분석을 활용한 연구들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10년간 질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한 연구논문들은 양적 연구방법론이나 기타 유형의 연구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여왔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이해되는

데, 이는 질적 분석 연구가 가족상담 영역에서 양적 분석 연구가 간과하기 쉬운 개인의 심리내적인 측면과 대인 및 가족관계의 역동성, 그리고 가족체계를 이해하는데 보다 풍부한 임상적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2008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편중(50%)되어 있던 질적 연구방법론이 그 이후 10년간 현상학을 포함, 문화기술지, 내러티브, 대화분석, CQR 등으로 다양화되었으며, 동일한 방법론을 사용하더라도 자료 분석이 더 세분화되어가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즉, 연구 주제를 다루어 가는 데 있어 보다 효과적인 접근방식을 취함과 동시에 연구 대상에 따른 보다 밀도 있는 관찰과 탐색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질적 연구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연구성과라 판단된다.

반면 질적 연구의 대상이 부부나 가족에 비해 개인이 70% 이상을 차지하거나 연구 주제가 개인과 가족의 경험에 국한되어 진행되는 측면은 최근 10년의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질적 경험적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사생활 노출이나 가족내 문제를 외부에 드러내는 것에 대한 거부감,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소수자 경험 발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대상이나 주제 면에서 상당히 제한되었다 평할 수 있다. 물론 일부 연구는 비록 소수이긴 하나 일반개인이 아닌 치료를 받았던 내담자들이나 상담과정을 경험했던 상담자들로 연구대상을 확장하였고 일반 현상이나 문제 상태를 질적 분석하는 단계를 넘어 상담과정을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변화의 과정을 질적 분석하는 등 주제의 확장도 시도하였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평가된다. 추후 연구는 다양한 현상과 대상, 주제를 조명하는 질적 경험적연구가 진행될 필요

가 있겠다.

임상치료연구는 차치하고 경험적연구에서도 질적 분석방법을 활용한 질적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질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드러났듯, 최근 10년은 그 이전 16년에 비해 질적 분석 경험적연구의 수가 괄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경험적연구 내의 양적분석 대 질적분석 연구의 비율도 이전 16년의 8:2 수준에서 최근 10년 6:4 수준으로 격차가 줄어들었다. 이는 가족치료/상담 인력 양성 기관에서의 연구방법론 교과 운영으로 인한 연구자들의 질적 연구에 대한 소양 강화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최근 10년간의 학회 워크숍이나 학술대회를 통한 질적 연구방법론의 강조 때문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1989~2007년까지의 한국가족치료학회 워크숍과 학술대회가 주로 체계적, Satir, 구조적, 이야기 가족치료나 밀란모델, 정서중심 부부치료와 같은 가족/부부 치료 모델의 소개나 특정 치료적 접근의 기법 소개, 그리고 특정 문제 상태에 대한 치료적 접근의 소개에 집중한 측면이 있었다면, 최근 10년은 가족치료 연구와 임상에서의 방법론, 특히 대화분석이나 상호작용분석과 같은 질적 방법론의 소개를 일부 포함하고 있었다(전혜성, 문의정, 김정은, 2018; 최중진, 백중환, 2017). 이러한 학회 차원의 노력이 한국가족치료학회지의 질적 분석을 활용한 경험적연구의 수 증가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증가하는 논문의 수 만큼 질적 연구의 질이 담보되고 있는가는 또 다른 측면에서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향후 연구 주제와 목적에 따른 질적 연구의 패러다임을 밝히거나 특정 질적 연구방법론과 자료분석방법

선택에 대한 근거 제시, 연구의 질에 대한 평가 등이 보다 상세히 기술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질적 연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양질의 질적 연구자를 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학과 학회를 중심으로 가족치료에 적합한 질적 연구방법론의 개발 및 훈련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 진행에 있어 연구윤리는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영역이다. 특히, 질적 분석 연구에 있어서 윤리적 연구 절차의 확보는 연구참가자의 권리 보장은 물론 보고된 자료의 신뢰성, 타당성, 질과 직결된다. 본 학회에서도 연구윤리 확립, 연구 부정행위 사전예방, 연구윤리 규정 준수를 목적으로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하였고, 2017년부터는 논문투고 시 IRB 심의를 필수요건으로 제시하며 윤리적 연구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윤리는 연구설계, 연구참여자 선정, 측정의 신뢰성과 타당성 등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연구자의 연구윤리 준수와 노력에 대해서도 형식적 기술에 그치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었다. 연구설계에서부터 연구참여자와의 심층면담, 그리고 연구결과 보고 과정에 이르기까지 윤리적 연구 실현을 담보하는 구체적인 연구 과정 및 절차의 기술이 요구된다 하겠다. 더불어 연구윤리에 대한 개념과 용어들이 통일성을 갖추지 못하고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사용되고 있음이 본 고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윤리 관련 개념 설립 및 용어 통일을 위한 이론적 논의와 연구가 추후 요구된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비치료 문헌연구에 관한 분석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최

근 10년간 문헌 및 이론의 고찰과 분석을 특징으로 하는 문헌연구의 수가 총 27편임을 발견하였다. 이는 이 기간 한국가족치료학회지에 게재된 총 논문 수(치료+비치료연구 모두 포함한 수)인 228편의 11.8%에 해당하는 수이다. 10년이라는 기간을 고려할 때 결코 많은 수는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치료학회의 문헌연구는 가족치료의 주요개념 및 모델의 분석, 가족치료의 통합/확장 및 적용, 실천분야 현황조사 및 방안제시, 성과연구 분석, 특정개념 및 현상에 대한 탐색이라는 다양한 주제와 현안, 영역을 다루고자 노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문헌연구 관련한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치료의 주요 개념이나 모델의 특성을 분석, 이를 한국사회에 적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된 연구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주요한 이슈들이나 현황들을 다룬 연구, 예를 들면 다문화가족의 증가 및 이들의 복지, 다문화상담사 인력양성, 가족상담사의 국가자격 제도화, 건강가정지원시설 활용 등을 다룬 문헌연구가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가족치료가 한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한지에 관한 실질적 피드백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이 영역 종사자와 관련자에게 매우 유용한 연구들로 판단된다.

반면, 가족치료 모델의 통합이나 확장 문제를 다룬 문헌연구나 기존의 성과연구들을 메타분석한 연구는 드물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가족치료 모델의 통합적 사용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나 실천 수준이 낮음을 드러내는 결과일 수 있다. 또한, 그간의 성과연구들이 메타분석에 포함될 만큼 충분한 연구 설계적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으로도 설명된다. 김현수 외(2018)는 최근 10년(2008-2018년)의 한국가족치료학회지 복수사례연구들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실험집단 참가자 수의 중앙치가 8명이었고, 전체 33개 중 15개 연구만이 통제집단(이 중 무처치통제는 12개, 대기자통제는 2개, 위약통제는 1개였음)을 가지고 있었다. 최근 EST(evidence-supported treatment) 확인을 위한 체계적 고찰이나 메타분석연구는 처치집단의 표본 수가 작은 연구나 무선대조군 설계(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가 아닌 연구들을 고찰에서 제외시키고 있다(Silverman & Hinshaw, 2008; Tolin, McKay, Forman, Klonsky, & Thombs, 2015). 국내에서 가족치료가 그 전문성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족치료의 효과성에 대한 경험적 근거의 제시가 필수적이며, 이는 체계적고찰+메타분석을 통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문헌연구들 중 효과성 탐색을 위한 메타분석연구는 양준석 외(2017)의 연구가 유일하였다. 이는 사별가족을 대상으로 한 치료성과연구들을 메타분석한 연구로, 여기에 포함된 12개 연구의 처치집단 참가자 수는 대략 7~8명 정도로 김현수 외(2018)의 가족치료학회지 복수사례연구 분석에서 나온 결과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에 국내 가족치료의 EST 리스트 구축을 위해 보다 큰 표본을 활용한 RCT 설계의 성과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제기된다.

이상으로 최근 10년의 한국가족치료학회지 비치료연구 동향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한국가족치료학의 나아갈 방향과 개선점을 논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가족치료학회 3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고, 따라서 그 연구대상을 한국가족치료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만으로 한정하였다. 관련 임상/실천 위주의

학회지들이 다수 존재함을 고려해 볼 때, 본학회 학술지 논문만을 기초로 한국가족치료학의 비치료연구 분야 면모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해 주길 당부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 강부자, 최연실 (2017). 군 장병이 인지한 가족 건강성이 군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독립의 매개효과. *가족과 가족치료*, 25(1), 137-153.
- 강진아 (2015). 해석의 과정으로서의 부부 정체성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23(3), 451-468.
- 강희숙, 양정옥 (2012). 이혼위기에 처한 부부들의 부부갈등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2), 183-199.
- 고경자, 정혜정 (2017). 농인(聾人)의 부부적응 유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25(4), 787-813.
- 고미영 (2010). 이야기치료의 변천과 발전: 이야기확장을 추구한 마이클 화이트의 이야기치료의 여정.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8(1), 83-106.
- \_\_\_\_\_ (2011). 한국 가족치료에 적용된 포스트모던 실천 원리에 대한 고찰.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9(3), 29-60.
- \_\_\_\_\_ (2014). 한국적 상담 현장에서의 반영팀의 활용에 대한 상담자의 경험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2(2), 205-228.
- 고미지, 박우철 (2018). 맞벌이 가족 내 부부적응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조모 양육행동의 조절효과. *가족과 가족치료*, 26(1), 109-131.
- 고영수 (2015). 사티어 변형체계치료를 경험한 내담자의 변화과정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23(1), 115-134.
- 고정은, 이민홍 (2015). 노인의 우울감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족요인과 지역



- 사회 요인 분석. 가족과 가족치료, 23(2), 363-380.
- 곽민하, 전해성 (2016). 부부갈등과 부부적응의 관계에서 탈중심화 및 용서의 조절효과. 가족과 가족치료, 24(3), 339-359.
- 구자경 (2016). 한 재혼가정 성인자녀의 내러티브 정체성 탐구. 가족과 가족치료, 24(2), 2071-226.
- 구혜진, 서미아 (2017). 중년기 여성의 애착순상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용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5(3), 401-418.
- 김갑숙, 전영숙, 이철우 (2009). 청소년의 부모 애착, 자아분화,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7(1), 209-224.
- 김경희, 정혜정 (2012). 중년남녀의 내러티브에 나타난 부부정체성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20(2), 253-274.
- \_\_\_\_\_ (2017). 베이비부머 은퇴 남성의 내러티브 정체성 탐구: 고학력 중산층 은퇴자를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5(4), 839-862.
- 김금자 (2012). 이혼위기 부부의 가족치료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적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2), 275-301.
- 김민정 (201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가정폭력이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9(3), 1-28.
- 김병수 (2009). 남편의 외도를 경험한 아내의 이혼에 대한 태도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7(1), 167-85.
- 김병훈 (2015). 의사소통 과정의 치료적 유형화에 관한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23(3), 605-626.
- 김사라, 김유숙 (2017).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가족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가족과 가족치료, 25(4), 815-837.
- 김성희, 엄영숙, 이아람 (2017). 가족상담사의 윤리적 이슈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25(1), 69-87.
- 김세련, 이인수 (2010). 사티어성장모델의 일치성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8(2), 87-107.
- 김수지, 최지원 (2017). 혼전 임신 부부의 이혼 과정에 대한 해석현상학적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25(4), 863-882.
- 김승옥, 정혜정 (2013). 기혼남녀의 마음챙김과 일치성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1(2), 203-229.
- 김은자, 정혜정, 신유순 (2016). 노인의 자기분화와 신체적 건강 및 성인자녀관계가 노년 초월에 미치는 영향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24(3), 435-457.
- 김은정, 강명수, 김덕일 (2015). PREPARE/ENRICH 커플관계 검사 내 SCOPE 성격소검사의 타당화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23(2), 315-333.
- 김정은 (2018). 청소년의 디지털 기기 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한 중독 상호작용 분석: 중단 연구를 통한 기기 간 상호작용 고찰. 가족과 가족치료, 26(1), 185-203.
- 김진성, 전해성 (2017). 대학생의 내재화 정서 행동문제가 부-자녀 갈등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순기능적인 대면 의사소통과 모바일 메신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가족과 가족치료, 25(1), 25-46.
- 김진희 (2017). 대학생의 성인애착 유형과 이성관계: 관계중독, 친밀감 두려움, 대인관계 유능성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5(4), 911-929.
- 김현수, 노미화, 조성봉 (2018). 한국가족치료학회지 분석을 통한 가족치료 연구의 동향분석: 임상치료연구를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6(4), 729-760.
- 김혜선, 박태영 (2012). 용서(장모-사위)관계에서 여성들의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3), 547-571.
- 김효숙, 이인수 (2015). 결혼생활에서 섹스리스 경험에 관한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23(3), 579-604.
- 나남숙, 이인수 (2017). 자기분화, 결혼만족도, 헌신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 적용. 가족과 가족치료, 25(1), 115-136.
- 남수경, 김명찬 (2016). '부모화된 자녀' 경험에 관한 협력적 자문화기술지.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4(3), 315-338.
- 남순현 (2009). 기혼여성의 성과 심리적 행동감 간의 관계: 성교부부 기혼여성과 비성교부부 기혼여성 비교.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7(1), 187-207.
- 노미화, 이인수 (2011). 비혼 여성의 가족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9(1), 77-101.
- 노영희, 김상인 (2016). 한부모의 자녀양육어려움, 고용지위, 사회적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부모의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4(2), 167-185.
- 도은숙, 정현숙 (2009). 상담자 소진 관련 변인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7(1), 125-143.
- 문수경 (2017). 노부모와 비동거 자녀와의 만남 빈도, 상호 호혜적 정서지원, 그리고 우울과의 관계. 가족과 가족치료, 25(3), 671-686.
- 문수경, 박서영 (2012). 노인의 근로활동 참여 여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족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3), 487-504.
- 문지혜, 정혜정 (2015). 대학생이 지각하는 성장기 폭력 경험과 폭력허용도 및 데이팅 폭력의 관계. 가족과 가족치료, 23(4), 627-653.
- 박선영, 정혜정, 이지선 (2017). 배우자의 분노 조절 문제에 대한 중년부인의 경험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25(3), 621-643.
- 박수진, 이인수 (2015). 부부의 원가족건강성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가족과 가족치료, 23(2), 381-400.
- 박영현, 박승민 (2015). 어린 시절 상처 치유 경험과 부부관계 변화과정 연구: 내면아 이치유 집단상담 참여 경험을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3(1), 239-271.
- 박우철 (2016). 부부갈등가족에서 부모자녀친밀유형에 따른 청소년자녀의 불안의 차이. 가족과 가족치료, 24(1), 101-118.
- 박우철, 김수지 (2015). 가족치료의 한국적 적용에 대한 문헌분석. 가족과 가족치료, 23(4), 687-710.
- 박우철, 유지연, 오은정 (2017). 부부폭력가족에서 부모자녀친밀유형에 따른 아동학대의 차이. 가족과 가족치료, 25(2), 211-225.
- 박은아, 윤명숙 (2015). 파트너의 외도경험과 PTSD 관계에서 낙관성의 조절효과. 가족과 가족치료, 23(4), 761-779.
- 박일환 (2016). 당뇨병 환자의 질병체험에서 나타난 당뇨병 관리를 위한 가족관계의 특성. 가족과 가족치료, 24(3), 297-314.
- 박정윤 (2015). 가족생활주기별 부부관계신념 지각, 유사성, 적용이 부부간 긍정적 행동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가족치료, 23(2), 335-362.
- 박정윤, 장영은, 이희윤 (2016). 20-30대 미혼남녀의 동거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24(2), 249-268.
- 박정희, 김유숙 (2009). 가족치료 임상에서 가계도 활용의 다양성 고찰.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7(1), 31-55.
- 박주은 (2014). 국내외 가족치료 학술지에 나타난 성과연구 분석: 2005년에서 2010년까지 발표된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2(3), 253-273.
- 박진희, 김유숙, 이윤선 (2013). 가족기능평가를 위한 임상평정척도 개발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1(2), 257-287.
- 박현미, 장석진 (2013). 가족지지와 청소년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1(1), 1-21.
- 변지영, 양혜정 (2018). 자기자비와 부부관계의 질: 부부 조망수용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매개변인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6(1), 1-22.
- 서미아 (2017). 남편과 아내의 애착손상 및 정서조절력이 부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델을 활용하여. 가족과 가족치료, 25(2), 327-345.
- 서미아, 정선미, 이성아 (2016). 정서안정성 및

- 정서조절력과 부-자녀 애착 관계에서 긍정정서의 매개효과: 청소년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4(3), 361-384.
- 서지은, 김희정 (2012).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3), 457-486.
- 서진환 (2008).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연구경향 분석 연구-창간호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6(2), 1-30.
- \_\_\_\_\_ (2010). 가족치료 연구-실천의 통합을 위한 성과연구 분석: 한국 가족치료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8(2), 1-25.
- 손고은, 김명찬 (2017). 부모화된 자녀의 정서 회복과정에 대한 협력적 자문화기술지.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5(3), 595-619.
- 손인봉, 최정아 (2016). 대학생의 자살사고에 대한 가족의사소통과 대학환경의 영향 검증. 가족과 가족치료, 24(4), 553-571.
- 송미화, 전영주 (2013). 가트먼 부부치료와 정서중심 부부치료에 대한 비교 및 이혼 전 상담에서의 통합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1(3), 307-330.
- 송자경 (2009). 가족강점이 간질아동 가족의 적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7(1), 145-165.
- 송혜란 (2014). 어머니의 대상관계와 자녀양육 행동의 관계: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2(4), 373-389.
- 신새봄, 정혜정, 황미진 (2015). 대학생이 지각한 원가족 건강성과 자아문화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활적응을 매개변인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3(3), 553-377.
- 신영화 (2010). 다문화가족의 역량강화접근.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8(2), 161-192.
- 신혜중 (2015). 가족 상담 및 치료의 현황과 과제: 일 학회 발표 사례를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3(4), 781-800.
- 안창현, 김진이 (2008). 부부의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및 가족 응집성·적응성과 갈등대처방식간의 관계.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6(2), 115-132.
- 양소남 (2011). 일하는 어머니의 일-가족생활양립을 위한 전략.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9(1), 103-126.
- 양정훈, 김진숙 (2017). 절제술 받은 여성유방암 생존자의 부부적응에 대한 경험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25(2), 275-300.
- 양준석, 유지영 (2018). 가족사별 중년여성의 애착유형이 역경 후 성장에 이르는 과정: 가족탄력성, 스트레스 적극대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16(1), 49-76.
- 양준석, 이정은, 유지영 (2017). 사별가족 치료 프로그램 연구동향과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가족과 가족치료, 25(3), 645-670.
- 양혜원, 전명희, 김희수 (2014). 부모 이혼에 대한 아동기 자녀의 경험-지역사회복지관 이혼가족 자녀 집단 프로그램 참여 아동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2(2), 173-204.
- 엄혜정, 이종우 (2011). 비만 여대생의 원가족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9(2), 93-121.
- 연규진, 연문희, 양지웅 (2013). 부부관계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과 결혼만족도와 관계 - 다층모형을 이용한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 분석.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1(1), 57-80.
- 오승하, 문수경 (2015). 한부모가정의 불안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자 가정과 모자 가정의 집단 간 비교분석. 가족과 가족치료, 23(4), 843-862.
- 오은희, 이인수 (2012). 기혼 남녀의 내외통제성과 일치성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1), 135-156.
- 오지훈, 김현수 (2017). 다문화가정 이주된 어머니의 문화적응과 유아자녀의 언어 및 사회 능력과의 관계. 가족과 가족치료, 25(4), 687-708.
- 오현주, 최승미, 조 현, 권정혜 (2012). 회피에 착이 신혼기 부부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 및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3), 525-546.

- 원아름, 박정윤 (2016). 이성교제 중인 미혼남녀가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및 이성교제 관계의 질과 결혼이미지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가족치료*, 24(1), 145-166.
- 유명숙, 서미아 (2018). 이혼위기를 극복한 중년기 남편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가족과 가족치료*, 26(1), 133-155.
- 유선영 (2016). 이주자 부모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주자 부모의 적응유연성을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4(2), 227-248.
- 유희남, 김영희 (2011). 원가족 분화경험이 기혼여성의 자아분화와 부부갈등 대처행동 및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9(3), 141-158.
- 유명숙, 김남희 (2013). 부모상실 대학생의 외상 후 성장 영향요인-사별, 이혼가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1(2), 177-201.
- 유명숙, 최혜정 (2011). 성학대 피해 아동의 생존과정.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9(3), 95-121.
- 이경미, 최연실 (2015). 자살자 유가족의 애도과정 경험에 관한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23(4), 655-687.
- 이미영, 권정혜 (2016). 자기개방과 공감반응이 신혼부부의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가족치료*, 24(4), 529-552.
- 이선혜 (2009). 이야기치료 문화의 이해를 위한 모건서베이의 적용.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7(1), 1-30.
- 이세은, 최연실 (2009). 상담관련 종사자의 이혼상담 경험과 미래 사용 의사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7(1), 97-123.
- 이승진, 이인수 (2015). 부모애착과 자녀 문제음주와의 관계에서 원가족 건강성의 매개효과. *가족과 가족치료*, 23(1), 273-289.
- 이영숙, 김현주 (2017). 남성 한부모 가정 자녀의 적응과정: 20대 자녀의 경험을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5(4), 709-734.
- 이은정, 어주경 (2015). 고등학생이 지각한 스트레스, 충동성 및 부모의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가족치료*, 23(1), 1-22.
- 이은진, 이인수 (2017). 배우자 부모와의 갈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의 조절효과: APIM 모델 적용. *가족과 가족치료*, 25(4), 761-785.
- 이정인, 이인수 (2016). 양육미혼모의 가족경험에 관한 연구: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4(2), 269-296.
- 이진아, 이인수 (2016). 부부관계의 비합리적 신념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자기분화,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가족과 가족치료*, 24(3), 385-408.
- 이현주, 정문자 (2017). 통합적 가족놀이치료를 통한 ADHD 아동 가족의 가족체계 변화 및 치료적 요인. *가족과 가족치료*, 25(3), 439-470.
- 이혜숙, 고경자 (2010). 농인의 가족 상호작용에 관한 문화기술지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8(2), 213-236.
- 이희윤, 박정윤 (2017). 합리적 질적분석을 활용한 동거 가치관에 관한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25(1), 47-68.
- 임금옥 (2017). 부모의 과잉기대, 과잉간섭, 비일관적 양육방식과 청소년 우울과의 관계: 청소년 공격성의 매개효과. *가족과 가족치료*, 25(2), 251-274.
- 임춘희 (2015). 이혼 후 동거 교육 및 상담에서의 이슈. *가족과 가족치료*, 23(4), 819-842.
- 임춘희, 이혜숙 (2017). 중년 여성의 이혼 후 재혼 노모에 대한 용서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25(3), 555-593.
- 임현선, 박정윤 (2015). 결혼초기 부부의 부부관계신념 지각과 적용이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 만족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가족치료*, 23(1), 135-156.
- 장영애, 박정희 (2009). 어머니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유아 간 애착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7(2), 213-232.
- 장영애, 이영자 (2011).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9(3), 183-205.

- 장영애, 이영자 (2012).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및 부부갈등이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3), 357-373.
- 장영은, 박선희 (2016).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신념과 역할만족도,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의 관계: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 *가족과 가족치료*, 24(4), 599-619.
- 장은정 (2017). 재가 미혼모의 홀로서기 경험 연구: 탈시설 과정을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5(3), 497-528.
- 장은경, 최연실 (2010). 중·고등 휴대전화 고의존군과 저의존군에서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학교생활 변인, 가족기능의 차이.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8(2), 193-212.
- 장은화, 어주경 (2013). 아동의 자아개념 및 다문화 경험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1(3), 289-305.
- 장희숙, 황순찬 (2017). 부부폭력 가해여성의 체험: 생존폭력의 맥락적 의미. *가족과 가족치료*, 25(4), 883-909.
- 전영주 (2012). 녹화 슈퍼비전에서 가족치료 훈련생의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1), 111-133.
- 전혜성, 문의정, 김정은 (2018). 한국가족치료학회의 국제교류 추진방향과 과제 모색. *가족과 가족치료*, 26(4), 627-648.
- 정문자, 김윤경 (2010). 해결중심단기치료사례의 특성과 효과성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8(1), 1-25.
- 정복자, 조성희 (2017). 부부의 마음챙김, 내외 통제성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형(APIM) 적용. *가족과 가족치료*, 25(2), 301-326.
- 정선이, 김현주 (2017). 섹스리스 부부의 결혼 유지 과정: 중년남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5(1), 89-113.
- 정연자, 이인수 (2017). 조손가정 아동의 적응 유연성에 관한 질적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25(3), 471-495.
- 정장수, 전혜성 (2016).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및 아버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가족치료*, 24(4), 505-527.
- 정혜정 (2012). 해결중심 단기 가족치료 사례에 대한 대화분석 연구: 모자갈등 사례에 기초한 치료자 개입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1), 85-109.
- \_\_\_\_\_ (2015). 가족의 위기 대처를 위한 건강가정지원 센터의 가족상담 서비스 강화방안. *가족과 가족치료*, 23(3), 421-449.
- 조성경, 최연실 (2014). 남·녀 대학생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의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2(1), 53-74.
- 조성봉 (2017). 관계 내 헌신(commitment)의 개념적 고찰: 동거 및 결혼 관계에의 적용을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5(4), 735-760.
- 조성희, 박소영 (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3), 505-524.
- \_\_\_\_\_ (2015).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초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3(4), 801-818.
- 조은숙 (2016). 가족행복지수 개발 및 시범적용 연구 - 건강가정사업에서의 활용을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4(1), 119-144.
- 조은숙, 김민경, 최연실 (2015). 가족상담사의 국가자격제도화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23(3), 469-498.
- 조은숙, 남영주 (2010). 초국적 분거부부의 섹슈얼리티와 친밀성: 기러기 가족현상을 통해 본 한국인의 부부관계 일 특성.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8(2), 135-160.
- 조은숙, 최연실, 김민경 (2015). 가족상담사의 국가자격제도화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23(3), 469-498.
- 천미영, 김희정 (2011). 조손가정 아동의 적응 유연성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9(3), 159-182.
- 최연실 (2011). 다문화가족의 복지욕구와 복지서비스의 현황 분석 및 통합적 개선방안 탐색: 가족상담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9(3), 61-93.

- \_\_\_\_\_ (2012). 동료 수퍼비전에서의 평가도구 활용 가능성 탐색. 미시적 상담 수퍼비전 모델(msm)에 근거한 상담면접평정양식(cirf)의 사용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2), 303-328.
- \_\_\_\_\_ (2015). 가족치료와 긍정심리학의 연계: 기반과 활용의 탐색. *가족과 가족치료*, 23(3), 401-419.
- 최연실, 조은숙 (2017). 다문화가족상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25(2), 181-209.
- 최정아 (2012a). 청소년기 우울의 발달적 변화에 대한 부모인지 및 자기개방의 중단적 영향: 위계적 선형모형(HLM)을 이용한 분석.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1), 57-83.
- \_\_\_\_\_ (2012b).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대한 잠재프로파일분석 및 개인, 부모, 또래 영향요인 검증.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3), 431-455.
- 최중진 (2016). 근거이론을 통해 살펴본 해결중심치료의 실천: 통합접근의 등장. *가족과 가족치료*, 24(1), 1-26.
- \_\_\_\_\_ (2017). 해결중심단기치료의 변화 여정 고찰: 서구문헌을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5(1), 1-24.
- \_\_\_\_\_ (2018). 해결중심상담의 기적질문에 관한 사례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26(1), 23-48.
- 최중진, 고정은 (2018). 2018 한국 가족치료 및 상담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26(4), 649-680.
- 최중진, 백중환 (2017). Insoo Kim Berg의 해결중심단기치료에 대한 미시분석. *가족과 가족치료*, 25(3), 529-553.
- 최지원, 유혜원 (2018). 지혜로운 중년 부부의 부부관계의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26(1), 77-107.
- 최혜정 (2012). 부부폭력을 목격하고 자란 자녀의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2), 157-182.
- \_\_\_\_\_ (2014). 성폭력 생존자의 적응유연성에 관한 고찰.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2(2), 75-95.
- \_\_\_\_\_ (2015). 성폭력 경험 여성의 용서과정에 관한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23(1), 187-216.
- 최희정, 이인수 (2009). 가족탄력성이 정신장애인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7(2), 175-194.
- 하상희 (2008). 부모와 자녀세대의 원가족 건강성이 대학생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6(2), 115-132.
- 하지승, 최연실 (2008). 기혼남녀의 성인애착 유형과 가족상담기대.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6(2), 67-94.
- 홍경선 (2014). 사이버불링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학부모의 사이버불링 인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2(4), 347-372.
- 황미진, 신유순, 김병수 (2009). 대학생이 지각한 원가족 건강성과 자기분화 수준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7(2), 195-212.
- Chung (2014). Reflecting on "independence" of Korean youth from a family systems perspective. *Kore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2, 407-433.
- Creswell, J. W. (2012).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 Creswell, J. W., & Miller, D. L. (2000). Determining validity in qualitative inquiry. *Theory into Practice*, 39, 124-130.
- Duncan, M. (2004). Autoethnography: Critical appreciation of an emerging art.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s*, 3, 28-39.
- Hays, D. G., & Singh, A. (2012). *Qualitative inquiry in clinical and education settings*. New York, NY: Guilford Press.
- Kim, J., Epstein, N., & Kim, J. (2017). Life stresses in adolescents with problematic media use: The role of anger management in cyberbullying. *Family and Family Therapy*, 25, 227-249.
- Kim, J., Epstein, N., & Moon, U. (2016). Self-efficacy and perceived parental

- support/affection as mediators of stressor risk factors for adolescent internet addiction in South Korea. *Family and Family Therapy*, 24, 483-504.
- Lee (2014). Narrative therapy: Korea's turn to new possibilities in health and human services. *Kore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2, 391-405.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Padgett, D. K. (2001). 사회복지 질적연구 방법론(유태균 역, 원제: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서울: 나눔출판사. (원저 1998년 발행).
- Silverman, W. K., & Hinshaw, S. P. (2008). The second special issue on evidence-based psychosocial treatment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A 10-year update.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7, 1-7.
- Tolin, D. F., McKay, D., Forman, E. M., Klonsky, E. D., & Thombs, B. D. (2015). Empirically supported treatment: Recommendations for a new model.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22, 317-338.
- 논문접수일 : 2019년 01월 26일
- 심사시작일 : 2019년 02월 07일
- 게재확정일 : 2019년 03월 04일

## Research Trends of the Non-Clinical Studie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Family Therapy

**Sung Bong Cho**

(Handong Global University)

**Miwha Noh**

(Appletree Child & Family  
Counseling Center)

**Hyun Soo Kim**

(Hanyang University)

**Objectives:** Since 1993, the Korean Journal of Family Therapy (KJFT) has been publishing research of various topics and types. Research trend analyses of the studies published in the KJFT were made in 2008 to celebrate the 20th anniversary of the association. However, upon the 30th anniversary, the need to shed light on the current status of KJFT research was clear.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features and trends of studies published in the KJFT for the last 10 years (2008-2018),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non-clinical studies, and to offer useful tips for the development of non-clinical studies on family and family therapy.

**Methods:** A total of 155 published non-clinical research articles were analyzed. These articles were classified as either empirical or review studies, and empirical studies were further classified as either studies using quantitative methods or studies using qualitative methods. Further analyses were made on studies in each group (quantitative empirical studies, qualitative empirical studies, and review studies) to illuminate characteristics in research topics/questions, targets, research methods, and analytic methods.

**Results:** Features and trends of non-clinical studies over the last 10 years were illuminated. **Conclusions:** The findings gave rise to important research tips for the development of the field of family therapy.

**Keywords:** *Korean Journal of Family Therapy, family therapy, research trends, non-clinical studies*